

조기교육/사교육

Early Private Learning

우남희(Nam Hee Woo)¹⁾

김유미(Yu Mi Kim)²⁾

신은수(Eun Soo Shin)³⁾

ABSTRACT

In this study we overviewed the early private learning for children in Korea. For last 20 years the number of children who were involved in it increased and the starting age had been lowered. Now more than 90% of the children are exposed to it before going to school. Mean number of private lesson per child is between three to four (33.6%). 32.7% of preschoolers take more than 5 kinds of private lesson per week.

Because of the frantic enthusiasm of the parents, most preschools and kindergartens are providing extra curricula in their programs. The main problem of the learning in Korea is that it does not run by government or universities with educational purposes but by commercial companies for profit.

Key Words : 조기교육(early learning), 사교육(private lesson), 과외(extra curricula), 어린이집(child care center), 유치원(kindergarten).

I. 현 황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곳에서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부터 선비를 이상적

인간상으로 여기며 높은 학식을 가진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문화를 가졌다. 그뿐 아니라 근대에 이르러 급격한 정치변화를 겪고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사회의 각 분야에서 우수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교

¹⁾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²⁾ 서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³⁾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Nam Hee Woo,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Educ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23-1 Wolgokdong Sungbukgu, Seoul 136-714, Korea
E-mail : nhwoo@dongduk.ac.kr

육에 대한 욕구 역시 점점 높아졌다. 그러나 높아지는 교육에 대한 욕구는 학벌을 중시하고 교육을 사회적 성공의 수단으로 여기는 풍조와 결합하여 정규교육 이외의 사교육을 발생시켰고, 현재 사교육은 경쟁적 교육구조로 인하여 더욱 조기화되고 더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서구에서의 조기교육은 가정으로부터 방치되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유아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켜 그들이 잠재력을 발휘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잘 적응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Braun & Edwards, 1972). 그러므로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조기교육은 주로 유치원과 유아원 등 정규교육기관에서 결손 유아들을 위한 보상교육이나 사회성의 발달을 위한 교육이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날로 확대되고 있는 조기교육은 보상교육이나 사회성발달이 아니라 특기나 인지학습 중심으로 정규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성 취업의 기회 확대를 가져왔으며, 경제적 여유는 계급상승의 기대와 함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가져왔다. 자신들의 세대에서 이루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욕은 정상적인 학교교육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교육을 추구하면서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조기교육은 정부나 교육기관에 의하여 주도되지 않고 시장경제의 주요대상으로서 기업이나 개인에 의하여 상품화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교육은 일반적으로 정규 학교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공교육을 제외한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서비스를 일컫

는다. 그러므로 초·중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과 일반인이 참여하는 모든 사적 교육서비스를 포함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교육정책 당국이 관심을 기울이는 사교육은 주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인·그룹과외, 학원수강, 학습지, 통신 및 인터넷 강의 등의 형태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8).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영유아기의 어린 아이들까지 사교육을 받고 있어 조기 사교육의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1. 영유아 대상 조기 사교육

우리나라에서 조기사교육이라고 할 때는 “학령기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원이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특기 또는 과외 교육으로 아동의 발달 단계적 특성이나 능력에 맞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인지적 자극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학습 자극”을 가리킨다(박찬욱, 2002; 우남희·현은자·이종희, 1993). 부모들은 유아들에게 이러한 조기사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자녀의 소질과 재능 개발, 장래의 학업에 필요한 지능개발, 초등학교 준비 등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박수진, 2001; 안지영, 2003; 홍은자, 2001). 그러나 실상 자녀들이 좀 더 일찍 다양한 교육을 받아 앞으로 경쟁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경쟁심리가 작용하고 있어 자녀가 학령기에 가까워질수록 초등학교 학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다(김효선, 2001; 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 2002).

1980년대 말부터 과열화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조기사교육은 현재 그 가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점차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우남희·현은자·이

종희, 1992a; 이기숙 외, 2002). 사교육의 종류를 살펴보면 피아노, 미술, 무용, 태권도 등과 같은 예·체능 분야를 비롯하여 한글, 글쓰기, 영어, 수학, 논술, 과학과 같은 학습 분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퍼져있으며 이들 교육의 대부분은 학원이나 학습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명순, 2002; 권민균, 2002; 황창연, 2000).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재 조기사교육은 종류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는 대상들의 수적인 팽창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대상 아동들이 연령도 한없이 하향화되고 있다. 1992년에 이루어진 서울시내 유치원 및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1,203명을 대상으로 한 조기사교육의 실태연구(우남희 외, 1993)에 의하면, 조사대상 아동 중 중학생의 65.6%, 초등학생의 75.4%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반면, 유치원에 재원중인 유아는 92.3%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는 조기교육의 대상 연령이 점차 하향화하여 어릴수록 조기사교육의 경험 빈도가 더 높은 것을 보여주었으며 10년 동안 조기교육을 받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였고 특히 유아기의 아동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전국적으로 조기사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이기숙 등의 연구(2002)에서도 약 86%의 유아들이 조기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 2세의 영아들조차도 교육을 받고 있었고 4가지 이상의 조기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들이 약 21%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10가지 이상의 조기사교육을 받는 유아들도 있었다.

2000년 이후 영유아기 사교육은 사교육의 가지 수가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학습 중심의 사교육이 심화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김보림·엄정애, 2007). 영유아가 받는 사교육의 가지 수는 2001년에는 2가지(30.3%), 1가지(28.8%)로

나타났으나, 2007년에는 4가지(25.0%), 5가지(20.9%)로 2, 3배 이상으로 사교육의 가지 수가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권정윤(2007)도 2가지 이하(33.5%)의 사교육을 받는 유아보다 3-4가지(33.6%), 5가지 이상(32.7%) 받는 유아의 수가 현저하게 높아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취학 전 유아들이 조기사교육에 소모하는 시간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1주일에 평균 6회, 하루 평균 4.8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경, 2003).

주로 학원이나 학습지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대상 조기사교육은 아동의 재능이나 동기와는 무관하게 선행학습을 위한 정답 맞추기나 단순 암기와 같은 기능 위주의 교육이다(김순희, 2001; 엄선희, 1999; 최문선, 1988). 이와같이 학습자 자신의 동기가 결여된 채 기계적인 학습을 강조하며 부모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은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이미지를 심어주고 더 나아가 다양한 정서 및 행동장애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현재 80% 이상의 유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학습지는 1980년 이후 시장이 형성된 이래로 점차 그 규모가 확장되어 1990년대 초에는 대기업까지 학습지 시장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급속도로 전국에 확산되었다(조항목, 1990). 학습지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유치원의 정규교육과정에서도 학습지를 활용하는 유치원이 증가하여 정부에서는 제5차 유치원교육과정에서 학습지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명시하였다. 유아대상 학습지는 과목별 학습지와 종합 학습지의 두 가지 형태로 발간되고 있으며 관리교사가 학습지를 사용하는 회원의 가정을 규칙적으로 방문하여 하루 5-10분씩 관리지도도를 하고 있다. 현온강 등에 의하여 1997년에 조사된 40종의 학습지 중

에는 만 6개월 영아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었으며 2세 이하의 유아를 시작연령으로 하는 학습지도 8종이나 있었다(현온강·공인숙·김영주·인완정, 1997). 2001년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유아 전문 학습지의 시장규모는 약 8~9천억으로,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한국일보, 2002. 1. 17). 현재 유아용을 포함한 학습지의 매출액은 꾸준한 성장으로 4조 4000억원을 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사설학원들은 종류도 다양해질 뿐 아니라 점차 대형화되어 프랜차이즈(franchise)의 형식을 띠고 있다. 특히 성인대상의 학원들이 유아 대상의 학원으로 변모하면서 조기교육의 상업화는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동아일보, 1986. 10. 23; 서울신문, 1987. 2. 19; 신혜선, 1993). 국내 어린이 영어학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2년 시사영어사에서 ECC라는 학원을 설립하면서부터이다. 소규모 그룹으로 영어를 가르치던 사설학원과 성인영어학원이 본격적으로 어린이 영어학습시장에 뛰어들어 2000대부터는 소위 ‘영어유치원’이라고 하는 유아전문 영어학원을 만들어 원어민 강사를 고용하고 대학등록금에 버금가는 교육비를 받으며 비대해져 가고 있다.

날이 갈수록 영유아기 사교육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기의 사교육은 영유아교육의 공교육화의 부재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OECD에서 발표한 GDP대비 교육의 공적투자비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의 가입 국가 중 유아, 초등, 중등교육의 공교육 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이다(<표 1> 참조).

특히,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초등교육기관의 연간 공적 투자비의 1/2밖에 되지 않으며 초등과

<표 1> OECD 국가의 GDP 대비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의 학생당 연간 공적 투자비(2005)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미국	20	22	25
일본	14	22	26
스웨덴	15	23	25
프랑스	16	18	30
한국	11	22	31
OECD 평균	18	21	26

<출처> OECD(2009).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 B1. TableB1.4.

중등교육은 OECD 국가의 평균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 유아교육은 평균 이하의 매우 낮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OECD, 2009). 이러한 결과는 공교육으로서의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부족함을 보여주며 결국 유아교육이 사교육 체제로 방치되어 초·중등 교육보다 더 높은 사교육 의존을 초래하게 하였다고 본다.

사교육의 시작 연령의 하향화로 최근에는 영아기부터 사교육에 노출되어 생후 5개월의 영아에게 영어노래를 들려주며 부모들의 기대심리를 자극해 원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영어학원이 있는가 하면, 생후 18개월부터 그림책과 카드 등을 이용해 부모와 함께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김경근, 2005; 양정호, 2005; 이성림, 2002). 수화학원도 24개월짜리부터 다양한 교구를 써서 수, 도형, 공간 등의 개념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만 1~3세 영유아를 위한 초(超) 조기교육으로 플래시카드를 이용한 한글교육이 수년 전 붐을 이루다 최근 몇 년간은 ‘창의성 개발’을 내건 은물, 가베, 프리벨 등 놀이 교구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 입학 전 만 3~4세에 한글과 영어, 수 등

을 배우며 피아노, 미술 등 특기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5세와 6세에는 그룹과외나 학원을 통해 독서교실, 한자 등을 시작하고, 일부 유아들은 유치원을 그만 두고 영어학원으로 이동을 하여 일부 유치원에서는 5세반 원아모집이 안될 정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유아들이 부족한 상태에다 미술학원, 영어학원, 태권도학원 등의 유아프로그램 운영으로 정규 유치원은 사교육에 밀려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영유아들의 학교인 유치원에서도 원아모집을 위하여 특기 적성, 영어 학습 등을 교과과정 속에 포함시켜 정통의 유아교육은 파행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정화 · 정선아 · 이명조, 2003).

특히 영유아기 사교육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것은 영어교육으로 1992년의 연구(우남희 외, 1993)에서는 5.7%의 유아들이 영어교육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1996년의 연구(우남희 외, 1996)에서는 35.4%가 교육을 받고 있었고 2007년의 연구(김보림 · 엄정애, 2007)에서는 59.0%의 유아들이 영어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영유아기의 영어교육은 2009년 현재에도 정규 유아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영유아기의 영어 사교육의 강도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2000년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2008년 영어 몰입교육에 대한 정부의 교육 정책에 의하여 영어 사교육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2. 초·중등학생 대상의 사교육

1980년대에 신군부정권이 과외금지조치를 내릴 당시 초등학생의 12.9%, 중학생의 15.3%, 고등학생의 26.2%가 과외를 받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 위헌결정을 내린 후 2001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과

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70.5%, 중학생의 63.9%, 고교생의 48.3%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03. 10. 16). 또한 2008년 통계청 발표에서는 2007년 기준, 초등학생의 88.9%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중학생의 74.6%, 일반고 학생의 62%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치들은 지난 20여년 동안 초·중등학생들의 과외현상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가 갈수록 심각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00년 이전에는 초등학생들 보다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과외를 더 많이 받았으나 이제는 초등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학교 외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교육의 조기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2008년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도의 초등학생 2,03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초등학교 아동 중 92.7%가 학교 수업 후에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의 거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교육에 노출되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조성연 · 신혜영 · 최미숙 · 최혜영, 2008).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교육의 대상 연령이 점점 낮아져서 이제 사교육은 중고등 학생들은 물론 초등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일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2004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우리나라 주요 사교육 상품의 현황 및 시장규모에는 초중등생을 위한 사교육 상품 중에서 학원이 전체 사교육 시장의 약 58%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비중이 높고, 학습지가 21%, 나머지가 21%를 차지하고 있다(<표 2> 참조). 이와 같이 2004년에는 학원이 사교육 시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의 연구는 그 비율이 더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2008년에 이루어진 조성연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2008)에서는 연구

<표 2> 주요 사교육 상품 현황 및 시장 규모(2003년 기준)

구 분	주요 대상	시장 규모	비 율
학 원	초등~고등학생	약 8조 2천억 원	58.0%
학습지	영유아, 초등학생	약 3조 원	21.2%
과 외	초등 고학년~고등학생	약 1조 2천억 원	8.5%
공부방	초등~중학생	약 8천억 원	5.7%
학습참고서	초등~고등학생	약 6500억 원	4.6%
온라인 학습	중고등학생	약 3000억 원	2.1%
계		14조 1500억 원	100.1%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보고서(2004. 10.)

대상 초등학생 2,032명중 1,376명이 학원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약 67%의 아동이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통계치는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들의 학원 의존성이 심각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학원에 다니는 아동의 숫자만을 보여 줄 뿐 실제 한 아동이 여러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허다한 현실을 감안할 때 학원교육이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통계치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3년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4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은 GDP대비 7.5%로 OECD 회원국 중 2위였고 민간기관에 대한 지출비중은 2.9%로 1위이며 이는 OECD 평균(0.7%)의 4배 수준이었다. 반면 공공교육기관에 대한 지출비중은 4.6%로 17위였다(매일경제신문, 2007. 4. 13). 이는 우리나라의 사교육이 세계 최대의 규모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후 2009년에 발표된 우리나라 통계청의 사

교육비 조사결과에서는 작년에 초·중등학생들이 소모한 연간 사교육비가 20조 9천억원으로 2007년 20조 400억원보다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일인당 월평균으로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평균 23만 3천원, 중학생이 23만 4천원, 고등학생이 19만 7천원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9). 또한 이들이 사교육을 받기 위하여 보내는 시간은 초등학생이 주당 8.9시간, 중학생 8.9시간 고등학생이 4.5시간이었다.

3. 사교육의 영향

현재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가정경제 구조와 사회 인력 구조 및 가정의 내적 상호작용, 공교육 운영, 학습자의 학습 태도와 능력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쳐 이제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분야 등 각 계 각 층을 망라하여 우리나라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었다. 실제 사교육의 팽창은 공교육의 위축을 가져왔고 과도한 교육으로 인한 아동들의 심리적 부담은 정신병리적 현상으로 돌출되고 있으며,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저출산의 문제까지 야기하게 되었다.

1) 사교육의 사회경제적 영향

사교육의 영향을 우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높은 사교육비의 비중이 가정의 복지증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현저한 차이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훼손하고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03년 교육개발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사교육비 지출액은 약 285만 7천원으로 월평균 23만 8천원이다.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하여 전체 학부모의 83.5%(매우 부담 25.5%, 다소 부담 58.0%)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이와 같은 과중한 지출은 부모의 양육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가중시켜 가정의 내적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가족 간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며(오지수, 2007) 심지어 출산을 회피하여 출산율 저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우남희 · 김영심 · 이은정 · 김현신, 2009). 1인당 연간 사교육비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강남지역은 477만 9천원으로 전국 읍면지역 203만원의 두 배 이상이 되어 사교육비 지출의 지역별 차이가 심각하였으며(한국교육개발원, 2003) 이러한 결과는 지역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한편, 사교육시장의 팽창은 우수인력이 손쉬운 돈벌이를 위해 사교육시장으로 몰리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생산적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2005년 학원총연합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학원 강사 수는 23,997명에 불과하지만(김미숙, 2007), 학원 관계자들에 의하면 현재 학원 강사는 약 2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대졸 이상의 우수인력들이 사교육시장에 몰려 있음으로서 고급인력이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사교육의 교육적 측면에서의 영향

영유아 대상의 사교육이 점차 확대되면서 학부모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다양한 교육의 시행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사교육은 유치원 밖에서만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특기 적성, 영어 학습 등으로 일반화되어 유치원내에서도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유치원의 정규교육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각종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유치원의 정규교과와 정규교육시간이 침해될 당하고 있으며 특별활동이나 영어교과는 대부분 유아교육을 잘 모르는 시간강사들에 의하여 운영됨으로 유치원교사와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여 유치원 운영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이정화 외, 2003).

특히 영유아기의 영어교육은 2009년 현재, 정규 유아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유치원에서의 영어교육을 지양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의 강렬한 욕구에 의하여 현재는 영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이 거의 없을 지경에 다다랐다. 더욱이, 2008년 새 정부의 영어교육 강화계획으로 영어 몰입교육에 대한 교육 정책이 발표되면서 영어 사교육은 더욱 강화되었고 유치원에서의 영어교육이 더욱 보편화 되고 있다.

초중등학생들 대상 사교육도 방과 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 내에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원에서는 선행학습의 형태로 학교에서 배울 것을 앞서 가르치므로 정규교육시간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학생들이 선행학습 중심의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학교에서의 학습에 흥미가 떨어지고, 학습 태도가 불량해져 공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02). 2008년에 보고된 교육개발원의 연구에서는 ‘사교육 없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가'라는 문항에 대하여 중학생 49.5%는 혼자 공부하기 불안하거나 사교육 없이는 공부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고등학생은 43%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강남지역에서는 중학생의 62.0%, 고등학생의 69%가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는 응답을 보여 사교육을 더 많이 받을수록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고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더 심해지리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8).

II. 연구쟁점

1. 조기사교육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조기교육을 시키고 있는 학부모들은 조기교육이 아동에게 많은 부담감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황혜신(2003)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대상 부모들의 80% 이상이 '조기교육을 안 시키는 것보다 시키는 것이 낫다'라고 대답하지만 실제 조기교육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일찍부터 아이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들은 조기교육이 자녀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기사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는 자녀들이 학업에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이러한 조기사교육의 효과가 추후 대학입학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학업에 대해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은 유아 및 아동은 결국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여러 가지 정서적, 신체적, 행동적 문제를 보이고 있다.

1) 영유아기 조기교육의 영향

과도한 조기교육을 받는 아동들 중 많은 수가 그로 인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로, 초등학교 이전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홍은자, 2001)에서 학원 및 학습지를 많이 하는 유아들은 그렇지 않은 유아들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련의 연구들(신의진, 2002; 우남희 외, 1992; Elkind, 1984; O'Brien, 1988)은 과도한 학업에 의한 스트레스는 정서불안, 도피증세, 충동적 행동, 주의 산만, 창의성, 발달 저하 등의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한 아동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 소아상담 중 70%가 사교육 및 학습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경향신문, 2004. 1. 26). 신의진(2002)은 인지교육을 중심으로 한 조기교육은 유아 및 아동의 발달단계에 상관없이 부적절한 학습 자극을 가하는 것으로써 그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뇌의 신경회로 중 스트레스 관련 부분의 조절력에 손상을 주고 더 나아가 면역기능 및 기억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그는 이러한 유아 및 아동들의 뇌 발달상의 문제는 인지 및 언어 발달의 저하, 사회성 저하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발달 지연 및 왜곡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며 조기교육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영유아기 사교육이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국의 311명의 공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의 인식을 분석한 우남희·백혜정과 김현신(2005)의 연구는 영유아의 사교육이 학습의 효과가 별로 없으며, 자율성, 창의성, 문제해결적 학습 태도에 긍정적 효과가 없다고 하였다. 반면, 정서적 측면에서는 스트레스, 무기력, 불안과 주의 집중력에 부정적 영향

이 높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사회성 발달에서는 사교육이 타인에 대한 배려나 자신감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단지 인지적 측면에서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학습요령을 더 잘 습득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영유아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이기숙의 연구(2002)에서는 “유아기에 문자(한글)와 수를 조기 학습한 아이들과 학습하지 않은 아이들을 추적 관찰해 초등 5년과 중 1년 때 모의고사를 실시한 결과, 국어 수학 성적은 큰 차이가 없고, 사회성은 조기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있다.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문제행동은 더 심각해진다는 연구들이 있다. 백혜정·김현신과 우남희(2005)는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학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유아들의 사교육 수, 시작 시기, 소요 시간과 사회정서적 문제 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들은 평균 4.41세에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고, 평균 2.55가지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최고 한꺼번에 9가지 사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받고 있는 사교육의 수는 유아의 외현적 문제행동인 비행, 공격성과 내재적 문제행동인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등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정운(2007)도 자녀의 교육, 양육,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사교육의 가지 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며, 유아의 문제 행동인 과잉행동, 신경질과 퇴행행동, 공격적 행동도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사교육의 강화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높이고, 유아의 문제 행동을 발생시키는 예측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으나 우남희(2006)의 연구에서는 유아기에 일찍부터 소위 ‘영어유치원’이라고 하는 외국어학원에서 영어로 유치원 과정 교육을 받은 유아들이 정규 유치원과정의 교육을 받는 유아들

에 비하여 창의력이 유의하게 떨어짐을 보여주었다. 우남희와 김현신의 연구(2004)에서는 영어 학습의 효과가 유아들의 지능과는 상관이 없으나 연령과 보존개념의 발달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보존개념이 아직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유아들은 보존개념이 발달한 초등학생들에 비하여 동일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의 효과가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들은 현재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대상 사교육이 효과가 없으며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초중등학생의 사교육의 영향

초중등학생 대상의 사교육은 주로 학원이나 과외를 통한 선행학습의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많은 비용을 쏟는 이유는 사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선행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약 70%가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선행학습을 시킨 학부모의 대부분은 선행학습을 시킨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87%), 오히려 68%가 다른 사람에게도 선행학습을 권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기대와는 달리 다른 변인을 통제한 경우 사교육(선행학습) 요인만의 교육적 효과는 뚜렷하게 증명되지 않았다. 한대동(2001)의 수능 모의고사 점수와 수학과의 여부와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과외학습에 선행되는 가정배경, 지능, 교육포부, 성별, 지역에 관한 변인들을 통제한 후 과외의 독립적인 영향을 추정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종태(2002)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성별, 가정

배경, 선행학습정도(과외), 학습태도 및 학습 전략을 독립변인으로 중다회귀 분석을 한 결과, 국어, 영어, 수학과목에서 현재 학교성적을 잘 예측해 주는 변인은 전년도 성적과 학습태도로 나타났다. 선행학습 변인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 학년이 높아질수록 과외와 선행학습 유무에 따른 성적의 격차는 줄어들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경향을 보여,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한편,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창의적 인재육성과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 학생들이 사교육 특히, 선행학습을 많이 받을수록 학교에서의 학습에 흥미가 떨어지고, 학습 태도가 불량해져 공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있다는 교사들의 주장은 이를 반영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02).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6년 12월에 실시한 사교육실태 조사에 의하면 고등학생 43%가 혼자 공부하기 불안하거나 사교육 없이는 공부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중학생 49.5%도 그런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의 저하를 가져옴으로 앞으로 더욱 많은 분량의 공부를 독자적으로 해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사교육을 받지 않은 외국의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우리라는 불안감마저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앞으로 사교육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공교육의 질적 개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한국교육개발원, 2008).

2. 조기교육의 발달적 적합성에 관한 연구

현재까지 사교육 전반에 걸친 교육의 효과나 적절성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 우리나라 아동들이 받고 있는 사교육은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고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나 교육을 받는 기간, 교육을 받는 종목의 수도 제각기 다 다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기교육, 사교육은 거의 모두가 선행학습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아동의 발달 단계나 지적 상태보다 앞서가는 교육이므로 발달에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실제 이러한 교육이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아 얼마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 혹은 발달단계에는 맞지 않고 앞서 가는 교육이지만 아동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현재 조기사교육으로 많은 아동들이 병들어가고 국가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사교육시장이 범람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과 아울러 효과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로 실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직까지 조기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단지 빠를수록 아이들이 쉽게 빨리 배운다는 단순한 통념에 의해 과학적 뒷받침 없이 과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행 조기사교육의 적절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교육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0조 원이 넘는 사교육시장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고 있으므로 과대광고나 허황한 광고에 현혹된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없는 비교육자들에게 자녀의 교육을 맡기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연구나 교육도 절실하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연구들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의 대표적인 형태인 학원에서는 연구를 위한 문호를 개방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학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1992년에 이루어진 우남희 등의 연구(1992년)에서는 그 당시 조기교육의 종류가 20여가지 된다고 밝혔으나 그 후 2007년의 연구(우남희·김영심·이은정·김현신, 2008)에서는 40가지의 사교육 종류를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사교육의 종류가 워낙 많을 뿐 아니라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도 모두 다르며 지속하는 기간도 아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문지 등을 통한 개별 사교육의 효과나 적절성을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중에 나와 있는 학습지의 종류도 1997년 연구 당시 이미 40가지가 넘고(현은강 등, 2002) 한 아이당 하고 있는 학습지의 숫자와 종류도 제각기 다르며 학습지 외에도 다양한 학원교육과 과외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사교육별 효과를 분석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다양한 사교육을 받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전체적으로 유추해 보는 정도의 연구들이 있고 그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영유아기의 사교육 중에서 최근 가장 과열된 것은 영어교육으로서 한국의 영유아의 80~90%가 영어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영어교육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조기영어교육의 실태와 학부모들의 인식과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한 연구는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일부 시행된 효율성 검증 연구 결과도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조기영어교육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연구들은 조기 영어교육이 영어 유창성, 학습 성취도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

다. 취학전후 영어교육 환경과 초등학교 3학년의 영어 유창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서현아·최미현·좌승화와 천희영(2003)의 연구에 따르면, 영어 유창성의 상하 집단으로 놓고 볼 때, 취학 전에 영어교육을 시작한 아동들은 상집단에 속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영어교육을 받기 시작한 아동들은 하집단에 속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영어교육을 시작할 시기의 아동의 영어에 대한 관심도와 취학전 주당 교육일수도 영어유창성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영어교육이 전반적인 유아 교육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박영예와 송정비(2000)의 연구에서는 조기 영어교육이 중요한 의사소통 능력인 듣기, 말하기, 듣고 표현하기, 알파벳과 단어쓰기 능력을 향상시킴과 더불어 유아의 지적 발달과 자신감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성옥(2002)의 연구에서도 유치원 이전에 영어를 시작한 아동들이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시작한 아동들보다 영어에 대한 선호도와 자신감을 더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조기 영어교육이 영어 유창성 뿐만 아니라 유아의 지적 능력과 정서사회적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교사나 부모들에게 만족도나 효과에 대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 결과로 실제적으로 조기교육의 효과를 검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더욱이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도 장기적인 효과가 아니라 공교육에서 초등 3학년에 영어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기에 효과를 분석하였으므로 이전에 덜 배운 아동이 많이 배운 아동보다 점수가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공교육에서 시작한 후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조기 영어 교육이 유아의 이중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황혜신(2004)의 연구는 실제 조기에 영어교육을 많이 받은 유아와 적게 받은 유아들의 한국어 능력과 영어 능력을 검증해 봄으로써 실제적인 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조기 영어교육 정도에 따라 한국어 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따라서 조기의 영어교육이 모국어 발달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동의 상위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연구한 신귀련, 조희숙(2002)은 영어 학원에 다니는 유아와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의 상위언어 능력과 연령, 모국어 능력, 외국어 교육경험 정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상위언어 능력은 유아의 연령과 모국어 능력과 정적 관계를 보이지만, 외국어교육 경험은 유아의 상위언어 능력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조기영어교육이 아이의 인지 발달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조기교육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위의 연구들과는 달리 조기영어교육의 효율성에 대해 부정적 결과를 보인 연구들도 있다. 조기영어교육 효율성에 대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한 이명조(2005)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1-6학년 아이의 학부모들은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아주 높으나, 유아기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영어교육의 효율성에 대해 회의적이어서 저학년 학부모들보다 영어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우남희와 동료들에 의해 2002년에 이루어진 영유아들의 조기 영어교육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만 4세아들과 만 7세아들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하여 영유아들 대상의 영어교육이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우선, 교육방법에 있어서

도 조기교육에 적절하다고 알려진 노래나 게임, chant 등도 유아들보다는 오히려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지발달상 기억 능력이나 응용능력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영유아들에게 영어교육은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교육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제2언어습득과는 달라 구조화된 학습상황에서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므로 영유아들보다는 초등학교생들이 더 효과적이었다(우남희 · 서유현 · 강영은, 2002). 이는 영어 교육에 있어서 어린 연령일수록 더 빨리 배울 것이라는 조기교육 찬성론자들의 생각과는 반대 결과이다. 또 이 연구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외국인 원어민 강사들의 문제가 심각하였는데 연구대상 79명의 강사들 중 3.8%만이 영어교육을 전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문학, 교육학을 전공한 강사들까지 합쳐도 29.2%에 불과하였다. 이들이 한국에 오기 전의 직업으로 영어강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4.8%에 불과하고 50% 이상이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로서 유아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전무하여 유아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을 남겼다. 따라서 조기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들에 대한 자격관리와 함께 그들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III 실제적, 정책적 이슈

1. 사교육에 대한 정부의 입장

1980년대 말부터 조기교육, 사교육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아동학회에서는 1992년 이미 ‘과열’, ‘열

풍'으로 묘사되어 온(경향신문, 1992. 4. 26; 동아일보, 1986. 10. 23; 서울신문, 1987. 2. 29; 한국일보, 1990. 1. 13) 조기사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계학술대회의 주제를 “조기교육의 현황과 전망”으로 정하고 그 당시 이미 심각한 상태인 조기교육의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노력하였다. 이 때 발표된 실태조사에서는 연구대상 1,203명 중 유아의 92.3%, 초등학생 75.4%, 그리고 중학생의 65.6%가 이미 취학 전에 특기나 과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우남희 외 1992b). 이는 취학 전 조기교육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을 뿐 아니라 조기교육의 조기화현상이 심각하여 유아들 10명중 9명이상이 정규학교를 경험하기 전부터 사교육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외국인 중 4년제 대학만 졸업하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 원어민 교사로 일할 수 있는 E-2 비자를 주어 영어조기사교육을 조장하였다.

십년 후인 2002년에 한국아동학회에서는 더욱 심화되는 조기교육의 현황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시 “한국 조기교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때 발표된 연구에서는 이미 조기특기 교육이 유치원까지 홍수처럼 밀려들어와 특별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사립유치원의 88% 이상이 조기 특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대상 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이라는 이름의 조기교육 중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영어(64.3%)였으며 과반수의 유치원에서 영어 외에도 미술(50.9%)과 체육(48.1)을 실시하고 있었고 악기연주, 종이접기, 컴퓨터, 과학, 학습지, 동화구연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숙 외 2001). 이들 유치원 중 특별활동으로 3-4가지를 실시하는 유치원이 34.8%

로 가장 많았는데 이러한 특별활동 실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부모들이 원하고 원아모집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65.86%의 유치원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거의 대부분의 유아들이 조기교육에 젖어있어 유치원에서도 조기교육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원아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2세 이하의 영아도 84%가 한글이나 종합학습지를 하고 있었고 3세 유아는 67%가 한글, 19%가 영어, 15%가 종합학습지를 하고 있었다. 한편, 유아용 학습지에 대한 연구를 한 김명순은 유아들의 70-80%가 1가지 이상의 학습지를 하고 있으며 그 당시 5개의 주요 학습지사의 회원 수(초등포함)가 500만명 정도라고 하였다(김명순, 2002). 이는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3-5세 유아들의 유치원 취원아 54만명과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보육인원 약 70만명을 합쳐도 124만명 정도에 불과하여 유아기 대상 학습지의 영향이 막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유아대상 조기사교육의 과열은 빠른 속도로 전국으로 퍼져나갔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 단지 유치원에서의 영어교육을 금지하고 학습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청을 통하여 방침을 내리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조기사교육의 과열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사교육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책을 펴고 있다.

2. 정부의 사교육 조장 현황

우리나라에 유치원이 처음 설립된 것은 1914

년이었으나 유치원에 관련된 유아교육법이 일반 교육법이나 유아교육진흥법 등의 관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된 법으로 제정된 것은 2004년이었다. 수많은 진통을 겪고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아교육법 제정과 함께 미술학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유아교육비를 미술학원에도 지원하는 것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하였다.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의 유아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과도한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복지 구현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술학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한시적으로 미술학원에도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물론 저소득층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 미술학원은 사교육기관이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그대로 사교육 육성이 될 수밖에 없다. 한시적 지원예정이 2009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미술학원이 과연 얼마나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유치원과 같은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장학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원교육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마치 학원에 다니지 못하면 제대로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서는 유치원보다 교육비가 저렴한 미술학원에라도 다니는 것이 유아들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과열된 학원교육 사교육이 유아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례들을 볼 때 하루 속히 어린 아이들이 학원이 아니라 정규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정부지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취학 전

아동 및 부모에게 체계적인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에 의한 아동기 지적 능력격차가 전 생애에 걸친 언어/인지/창의성의 격차로 고착화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학습지 회사들이다. 현재 교원, 구몬, 대교, 아이북랜드, 영교, 웅진씽크빅, 한솔, 한우리열린교육, 재능이 이 프로그램 제공기관으로서 주 1회 방문교사를 가정으로 보내어 아이에게 15분-20분씩 책을 읽어주고 글씨를 가르치는 등 독서지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유아 1인당 월 3만 원씩을 바우처로 제공하나 기관마다 서비스 가격이 다르고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예 : 웅진씽크빅 월 4만3천원, 아이북랜드 월 3만9천원 등). 이러한 국가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책을 접할 기회를 줌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결국 이 정책은 이미 비대해져 있는 학습지 회사의 소득을 더욱 증대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사교육시장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보건복지가족부, 2009).

3. 영유아기의 사교육의 문제

한편, 조기사교육의 문제는 영유아기에 더욱 심각하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 통계에는 학령전 영유아들 대상의 사교육은 자료조차 없다.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의한 연 2회 초중고등학교의 사교육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7년, 2008년 한국교육개발원과 통계청의 사교육 실태 조사에서 영유아대상 사교육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으며

로 영유아기 사교육 실태 조사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안되기 시작하였다(김일혁·김영원·남수경·김형철·이수정·성태제, 2007).

특히 외국어교육은 영유아들의 발달상 적합하지 않다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영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원아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조기 영어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영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한 유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4. 저출산과 사교육

한편,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로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저출산의 원인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녀 사교육비의 부담이므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우남희 외, 2009).

이제 정부에서도 사교육의 병폐와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사교육비 절감대책으로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며, 참여정부에서는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2004년부터 EBS수능강의를 도입하는 한편, 2005년부터 방과 후 학교 사업을 시작하고, 2년 후 자체 조사를 토대로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켰다고 발표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08). 이번 정부에서는 사교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사교육 없는 학교>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2009). 하루 속히 바람직한 정책이 국가 수준에서 실시되어 사교육시장의 팽창을 막고 자라나는 아동들이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수란·이유미(1999). 사교육 교육성에 관한 연구. *나주대학논문집*, 4, 161-172.
- 교육과학기술부(2008).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원 관련 제도 정비 및 온오프 블렌디드 학습지원 방안 연구.
- 교육인적자원부(2001). 2000년도 사교육비(과외비)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권정윤(2007).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문제행동.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2), 1-19.
- 김명순(2002). 조기교육의 상업화 : 학습지, 아동도서 및 놀이감을 중심으로. 2002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81-103.
- 김미숙(2007). 사교육실태조사 및 사교육비 경감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보람·엄정애(2007). 유아 조기특기교육의 실태와 어머니 양육신념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8), 13-24.
- 김순환(2008). 유치원에서의 영어교육 현황과 담당교사의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13(5), 327-355.
- 김형철·윤은경(2005). 초등학교 사교육이 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하여. *대한영어영문학회지*, 31(3), 91-124.
- 김은미(2003). 유아영어교수법과 연령이 영어성취도와 흥미도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12(2), 177-195.
- 김일혁·김영원·남수경·김형철·이수정·성태제(2007). 사교육비 조사방법의 개선연구. 연구보고 RR 2007-23.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김지하·백일우(2006). 게임이론에 기초한 입시과의 수요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5(1), 187-215.
- 김진영(2008). 우리나라 가구 사교육비 지출의 특징과 사교육 정책에 대한 함의. *교육재정경제연구*, 17(3), 1-28.
- 마송희(1997). 유치원 영어교육의 타당성 및 교수방법에 관한 고찰. *유아교육학논집*, 1(2), 175-192.
- 마송희(2008). 유아교육기관 영어교육의 타당성과 바

- 람직한 실천 방안. *열린유아교육연구*, 13(4), 221-245.
- 박소영(2008). 방과후 학교와 EBS 수능강의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교육행정학연구*, 26(1), 391-411.
- 박수진(2001).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조기, 특기교육에 관한 실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화윤 · 안라리 · 하양승(1997). 유치원 영어교육의 실태와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7(2), 183-206.
- 백혜정 · 김현신 · 우남희(2005). 조기사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3, 23-43.
- 성낙일 · 홍성우(2008). 우리나라 사교육비 결정요인 및 경감대책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 10(3), 183-209.
- 신동주(2007). 유아의 영어경험이 초등학교 1학년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1(2), 349-374.
- 신진(1997). 사교육 문제를 보는 올바른 시각. *여의도 정책논단*, 14, 106-116.
- 양정호(2006). 한국의 사교육비 격차 추세에 관한 연구 :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다극화 지수와 지니계수를 이용한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5(2), 199-219.
- 오지수(2009).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교육 실태와 자녀양육 스트레스. *아동교육학회*.
- 우남희(2004). 아동의 권리와 한국의 조기교육. *한국 아동권리학회*, 8(2), 189-207.
- 우남희(2005). 우리나라의 유아대상 조기교육 확산의 사회적 심리적 요인. *생활과학연구*, 10, 161-173.
- 우남희(2006). 유아의 창의성과 조기 영어교육의 관계 분석. *생활과학연구*, 11, 126-133.
- 우남희 · 김영심 · 이은정 · 김현신(2009). 저출산 시대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한국 어머니들의 인식 및 실태 조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3), 297-325.
- 우남희 · 김현신(2004). 아동의 지능, 보존개념의 발달과 영어학습과의 관계분석. *아동학회지*, 25(1), 1-12.
- 우남희 · 김현신(2004). 한국 조기교육의 과거와 현재. *생활과학연구*, 9, 169-180.
- 우남희 · 백혜정 · 김현신(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 5-24.
- 우남희 · 서유현 · 강영은(2002). 영유아에 대한 조기 영어교육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 정책 연구과제 2002-16. 교육인적자원부*.
- 우남희 · 이종희(1996). 영어교육 조기화의 문제점 분석. *응용언어학*, 9-10, 137-152.
- 우남희 · 현은자 · 이종희(1992a). 사설학원 및 가정 중심의 조기 특기/과외교육 실태 연구. *조기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63-85.
- 우남희 · 현은자 · 이종희(1992b). 사설학원 및 가정 중심의 조기 교육 실태 연구. *유아교육연구*, 13, 49-64.
- 우남희 · 김영심 · 이은정 · 김현신(2008). 저출산 시대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한국 어머니들의 인식 및 실태 조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3), 297-325.
- 이경희 · 전예자(1997). 가정과 유치원에서의 유아 영어교육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3(0), 203-230.
- 이기숙 · 장영희 · 정미라 · 홍용희(2002). 가정에서의 유아 조기, 특기교육 현황 및 부모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2(3), 153-171.
- 이대균 · 백경순 · 정명자(2006). 유아영어교육의 연구 동향 및 내용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0(2), 95-120.
- 이명조(1995). 유치원에서의 영어 조기 교육.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 107-126.
- 이수정(2007). 명문대 중심 대입관과 사교육비 지출간의 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5(4), 455-484.
- 이윤숙(2003). 유아 영어 교육에 관한 제언. *현대영어교육*, 4(2), 105-147.
- 이정화 · 정선아 · 이명조(2003). 사립 유치원의 특별활

- 동 실태와 문제점.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2), 85-118.
- 전예화(2003). 영어교육 어릴수록 효과적인가?. 유아교육연구, 23(3), 285-305.
- 조민정(2007).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 정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성연 · 신혜영 · 최미숙 · 최혜영(2008). 한국의 아동은 행복한가? : 전국초등학교 2, 4,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69-81.
- 중앙일보(2009. 6. 19). 서울지역 외고 입시 내신 비중 커진다. <http://www.joins.com/>에서 2009년9월10일 인출.
- 채창균(2006). 고교평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2), 163-179.
- 최혜숙(2006). 초등학생의 선행학습과 학문적 자아개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교육연구논총, 26(1), 221-240.
- 최정선 · 박종근 · 구인선(2007). 자기 및 타의주도적 선행학습이 과학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과학교육학회, 27(9), 765-777.
- 최형재(2006). 사교육은 대학진학에 도움을 주는가, 제8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노동연구원.
- 최혜정 · 조성자(2007). 유아영어교사의 자질과 양성 교과목에 관한 실태연구. 아동학회지, 28(6), 17-36.
- 통계청(2008). 2007년 사교육비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 통계청.
- 통계청(2009). 2008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서울 : 통계청.
- 한국교육개발원(2008). 사교육의 실태와 대처방안. 현안보고 OR 2008-5-16. KEDI Position Paper, 5(16).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02). 선행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2003).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 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중심으로(사교육비 경감방안 제5차 공청회 자료집).
- 한국교육개발원(2003).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수탁연구 CR 2003-19.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08). 사교육의 실태와 대처방안.
- 한지혜(2005). 조기교육에 관한 경남지역 학부모, 유아교육자, 초등학교 교사의 생각. 교육이론과 실천, 15, 5-44.
- 현운강 · 공인숙 · 김영주 · 이완정(1997). 유아용 학습지의 현황 및 인식도. 1997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65-104.
- 현운강 · 조복희 · 도현심 · 박혜원 · 박경자 · 이귀옥 · 이숙 · 이옥 · 조성연 · 최보가(2001). 한국 아동 발달의 현황. 2001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07-136.
- 홍진곤 · 장보윤 · 김경록 · 진석인(2008). 초등학교 수학영재의 수학교과 선행학습정도과 수학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16(3), 123-138.
- 황혜신(2004). 조기 영어 교육이 유아의 이중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13(4), 497-506.
- Braun, S. J., & Edwards, E. P. (1972). *History and theor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Belmont :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Inc.
- Breckman, W., & Lichtenstein, J. M. (1987). *Academy Stress in Kindergarten Children*,(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10 865).
- Elkind, D. (1984). 스트레스받는 우리 아이들(이현순 · 심성경 · 원영미 공역). 서울 : 창지사.
- O'Brien, S. J. (1988). Childhood Stress : A creeping Phenomenon. *Childhood Education*, 156-160.
- OECD (2009). *Education at a glance 2009*. Paris, France : OECD.

2009년 8월 18일 투고, 2009년 11월 3일 수정
2009년 11월 11일 채택